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연방정부 섯다운, 미 신용등급에 타격줄 수 있어
- USNews: 모기지율 7% 넘어도 주택 가격 계속 상승
- WSJ: 미국인들 연준 고금리 탓에 여파 느끼기 시작했다
- Bloomberg: 월가, 연준 성장 전망에 동의... 고금리 지속 인정

[미국 금융]

- Bloomberg: 정부 섯다운 우려 때문에 달러 ‘최고의 피난처’로
- YahooFinance: JP 모건 CEO, “세계가 7% 고금리 가능성에 대비 못해”

[미국 생활]

- CNBC: 프라이빗 클럽들의 회비는 10만달러

[운송]

- CNBC: 그림자 선단, 불법 유류 거래 늘어... 거래 규모 수십억 달러에 달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내년에 임금 적게 오르고 승진 횟수 줄어든다
- WSJ: 구글, 재판에서 애플과 삼성과의 검색엔진 거래 내용 유출돼
- Bloomberg: 월마트, MobileX와 함께 새로운 통신 요금제 출시
- Bloomberg: 아마존, AI 경쟁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고서]

- The Economist: 아시아가 어떻게 경제모델을 재구축 하는가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Moody's: Government shutdown could hurt America's top credit rating

연방정부 섯다운, 미 신용등급에 타격줄 수 있어

- 어제 월요일Moody's Investors Service는 연방정부 섯다운이 발생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기관은 단기적인 섯다운이 경제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제도와 가버넌스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치 양극화가 재정 정책 결정에 큰 제약을 가한다는 점을 보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
- 연방의회는 의회가 연방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0월 1일에 섯다운 된다.

CNN Business 기사

USNews: Home Prices Continue to Rise Even as Mortgage Rates Top 7% 모기지율 7% 넘어도 주택 가격 계속 상승

- 오늘 화요일 S&P 쉐러 지수(S&P CoreLogic Case-Shiller Index)에 따르면 높은 모기지율과 낮은 주택 매출 상황에서 7월에 주택가격이 0.6% 상승했다.
- 연간 베이스로는 전국 관련 지수는 1년전에 비해 1% 상승했다. 특히 강한 상승세를 탄 시카고, 클리블랜드, 뉴욕의 경우 각각 4.4%, 4%, 3.8% 상승했다.

USNews 기사

WSJ: Americans Finally Start to Feel the Sting From the Fed's Rate Hikes 미국인들 연준 고금리 탓에 여파 느끼기 시작했다

- 주택과 자동차 용자를 받는 미국인들은 수년전에 비해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광범위한 벤치마크에 연동된 이자율을 적용받는 크레딧 카드 소지자나 용자를 받는 이들의 이자율이 더 높아졌다. 한마디로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 30년 주택 모기지는 2년전 3%에서 7% 언저리로 올라, 주택 구입자는 2년전에 비해 매달 평균 수백달러를 더 내는 셈이다. 자동차 용자도 올랐다.
- 관련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가정이 새차를 구입하려면 3년전에는 33개주 기간의 소득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44개 주 동안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일반 미국인 가정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전미부동산협회는 전한다.

WSJ 기사

Bloomberg: Wall Street Echoes Fed's View on Growth, Higher-for-Longer Rates 월가, 연준 성장 전망에 동의... 고금리 지속 인정

-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 성장에 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금리가 더 높게 지속될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을 인정하고 있다.
- GDP는 3분기에 연율로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한 소비지출과 민간 지출이 예상된다. 이는 8월의 전망치 1.8%과 비교하면 분기초에 예상했던 성장율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 동시에 지난달의 오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잡은 길을 더욱 험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US Dollar Emerges as Best Haven From American Government Shutdown Fears****정부 섯다운 우려 때문에 달러 ‘최고의 피난처’로**

- 달러가 다시한번 중요한, 유일한 피난처로 입증되고 있다.
- 섯다운이 임박해 미국의 재정적인 방만함으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와 채권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결정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달러를 제외하고는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미 국채 폭락은 달러 수요를 앞당기고 있으며 25조5천억달러의 국채 시장은 유동성 우려, 연준의 긴축 정책,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증가로 타격을 받고 있고, 투자자들이 선물 베팅에서 빠져나가면서 3년 연속 전례없는 손실에 직면해 있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Jamie Dimon says Americans are on an economic ‘sugar high’—and he’s urging clients to batten down the hatches and prepare for rates to hit 7%**JP 모건 CEO, “세계가 7% 고금리 가능성에 대비 못해”**

- 최고 책임자 Jamie Dimon는 연준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세계가 여전히 잠재적인 ‘스트레스’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연착륙을 바라지만 불확실한 거시 경제의 배경과 연방 정부 섯다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 그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연방정부가 계속 적자 상태일 수는 없고, 러시아 전쟁,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문제등과 더불어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리가 7%에 도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을 강타하는 최악의 시라니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YahooFinance 기사

[뉴욕 생활]

CNBC: The first tour inside Manhattan's newest private club, with \$100,000 membership fees
프라이빗 클럽들의 회비는 10만달러

- 새로운 프라이빗은 뉴욕의 Casa Cipriani와 Zero Bond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Aster와 Heimat, 마이애미의 ZZ's Club등이 있다. 이들 클럽들은 구 시대의 클럽을 다시 정의 하면서 오늘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이동성이 높은 부유층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이들 클럽들은 식당, 저명한 요리사, 웹빙 스파, 체육관, 바, 수영장, 나이트 클럽,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 등의 편의 시설로 경쟁하고 있다.

CNBC 기사

[운송]

CNBC: 'Dark' ships are faking their locations to move oil around the world — and it's likely worth billions of dollars
그림자 선단, 불법 유류 거래 늘어... 거래 규모 수십억 달러에 달해

- 해양 기술 기업인 Windward에 따르면, 많은 선박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조작해서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전문가들은 이런 선박들의 행동이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유 생산지를 숨기려는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한다.
- 이렇게 암암리에 진행되는 유류 거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Why you may see a smaller pay raise and less chance of a promotion next year
내년에 임금 적게 오르고 승진 횟수 줄어든다

- 컨설팅회사 Mercer의 최근 인사관리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주들이 내년에는 임금인상과 승진을 더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 이 조사는 15개의 산업군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운영하는 900여명 이상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 조사 응답에 따르면, 성과급 인상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올해 평균 3.8%에서 내년 3.5%로 하락이 예상되며, 비노조 근로자의 총 급여인상에 대한 예산 증가율 또한 올해 평균 4.1%에서 내년 3.9%로 하락할 것이라고 Mercer는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Google Trial Spills Details on Search Engine's Deals With Apple, Samsung**구글, 재판에서 애플과 삼성과의 검색엔진 거래 내용 유출돼**

- 온라인 검색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구글의 전략에는 두 핵심 파트너가 있다. 애플과 삼성이다.
- 이런 구글의 전략이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이목을 끄는 반독점 재판에서 공개되었다.
-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에 의하면, 구글은 애플을 비롯한 다른 협력 기업들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글의 검색엔진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용해 검색엔진 시장에서 현재의 시장지위를 지켜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 구글은 온라인 검색의 대략 9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십억 명의 인터넷 검색 행동에 지배적인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
- 구글의 대변인은 이전의 성명을 다시 언급하며, 구글이 인터넷 도메인 자리를 위해 경쟁한 것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애플 또한 구글의 검색엔진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 주장에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WSJ 기사

Bloomberg: Walmart to Roll Out New Prepaid Phone Service From Boost Founder**월마트, MobileX와 함께 새로운 통신 요금제 출시**

- 월마트가 Boost의 공동 창업자인 Peter Adderton에 의해 올해 초에 설립된 통신회사 MobileX와 함께 선불 전화 요금제 서비스를 확장한다. 월마트는 MobileX의 첫 번째이자 배타적인 소매 사업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오늘 화요일 월마트는 발표했다.
- 도매계약을 통해 Verizon Communication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MobileX는 오늘 화요일부터 월마트의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한 달 14.88달러에서 시작하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저가요금제의 경우 최소 4.08달러에서 시작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azon Makes a Shrewd Move in the AI Arms Race
아마존, AI 경쟁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다

- 어제 월요일, 아마존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동을 보였다.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Anthropic에 10억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다. 이 투자 금액은 40억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Anthropic의 소수 지분을 포함하며 또한 아마존과 그것의 클라우드 부서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위한 일종의 타개책으로 보인다.
- 이번 계약을 통해 아마존이 크게 환영하는 점은 Anthropic이 앞으로 자사의 모든 최신 제품에 아마존의 Trainium and Inferentia 컴퓨터 칩을 장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 그동안 NVIDIA가 생산한 컴퓨터 칩을 대체하길 희망하고 있다.
- 만약 AI의 선두 주자인 Anthropic가 자사의 최신 제품에 아마존의 칩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는 AI 부문에서 NVIDIA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계속되진 않을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걸 의미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The Economist: How Asia is reinventing its economic model 아시아가 어떻게 경제모델을 재구축 하는가

-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이 계속해서 증가해 이들 국가 간의 자본 흐름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서로 밀착되고 있는 바, 아시아 대륙의 경제와 정치적 미래를 재구축할 새로운 아시아 상업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 아시아의 투자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2010년 48%보다 상승한 현재 59%의 지분을 차지하며 지역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과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는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식적인 원조와 정부지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아시아 지역의 은행들은 과거의 경우 지역 해외 대출의 3분의 1만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아시아 내에서 중간재 뿐만 아니라 완제품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같은 경제 및 화폐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 아시아 국가의 산업도시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양은 수출입 시장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게다가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동북 및 동남아시아에서 북미로 수출되는 기계류의 양은 2배 이상 증가했다.
- 이런 아시아 국가 간의 모습은 보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일류 선진국 수준의 생활 스탠다드를 공급하고, 먼 곳에서의 투자를 장려했던 과거의 서구 수출 모델은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 됐다.

번역: 전성엽

The Economist 기사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미국인 80%, 코로나 이전보다 저축 줄어...경제성장에 악재**

**재산 상위 20%는 8% 늘고, 하위 40%는 8% 감소
주택·주가 상승 반영...경제 떠받쳐온 소비력, 소진 가능성**

미국인 중에서 가장 부유한 20%만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보다 더 많은 저축을 보유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80%는 저축이 줄거나 바닥난 것으로 추정돼, 그간 성장을 일부 떠받쳐 온 소비력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계 재정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